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다섯해전 판문점을 찾으시여 겨레에게 조국통일의 밝은 희망과 승리의 확신을 안겨주시고 내외분렬주의세력에게는 파멸의 경종을 울리신 판문점 시찰의 여운은 오늘도 천파만파의 갈기를 일으키며 찾아들 줄 모른다.

다 아는바와 같이 판문점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살벌한 곳이며 언제 어느 순간에 총포성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최전방이다.

항시 침략과 도발을 꿈꾸는 총구에서 불길이 뿜어져나온 적은 그 얼마였고 돌발적인 사건이 전쟁으로 번져질뻔 했던 사태는 또 그 얼마인지 모른다.

폭약의 도화선, 시한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격전 전야의 현장이다.

남조선에서 내외호전세력의 무분별한 전쟁연습으로 하여 당장이라도 전쟁의 불길이 치솟을 수 있는 일촉즉발의 정세가 침예하게 조성되였던 시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판문점을 시찰하시였다.

대국상을 당한 인민들의 가슴에 피눈물이 채 마르지 않았던 그 시기 그 무슨 《급변사태》와 《체제변화》를 떠벌이며 북침전쟁연습에 광분하는 적대세력의 기를 꺾어버리시며 그이께서 단행하신 판문점시찰은 백두산장군의 드센

통일조국에로 이어진 령장의 발걸음

배짱과 담력을 시위한 혁사의 장거였다.

그이의 판문점시찰에 대해 남조선의 언론들은 《청청하늘에서 섬팡이 일고 천둥소리를 듣는 것 같아 깜짝 놀랐다.》, 《백악관과 청와대가 공중분해 되는 것을 보는 것 같다.》고 전하였다.

담력과 배짱은 령장의 필수적 자질이다. 아무리 지략이 뛰어나고 전략전술의 능수라고 해도 담력과 배짱이 없으면 령장이라 말할 수 없다.

하기에 한 군사전문가는 명장으로서의 진정한 가치는 명작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담력과 배짱에 있다고 말하였다.

적들의 총구가 지척인 최전방으로 어유작작하게 나가시고 대낮에 판문각로대우에서 쌍안경으로 남녘을 바라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담대한 모습은 그야말로 적대세력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천하제일명장의 서리발기상이였다.

환하신 미소를 지으시고 판문점의 여러곳을 돌아보시고 전초병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원수님의 그 담대한 기상에서 적대세력들은 국도의 공포와 불안에 허우적거렸다.

남조선언론이 《김정은최고사령관이 보란

듯이 대낮에 판문점을 시찰하여 쌍안경으로 군사분계선과 분단의 현장을 한참동안 둘러보았다. 그 보도사진을 보면 한동안 벌어진 입을 다물수가 없었으며 도대체 김정은최고사령관의 담력과 배짱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분의 마음엔 어떤 의지, 무엇을 어디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가 서있는지 감히 추리하기를 포기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한 것은 우연하지 않다.

그날 원수님께서는 세상을 놀래운 영웅조선의 전승업적을 대대로 빛내여나가야 한다고, 앞으로 싸움이 일어나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원쑤들이 무릎을 끓고 정전협정조인이 아니라 항복서에 도장을 찍게 할것이라고 하시였다.

명장이 있는 곳에는 승전고가 울리기 마련이라고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말씀은 적대세력의 무분별한 침략파증을 초강경의 대응으로 무자비하게 다불리는 승리의 퇴성이 고 통쾌한 승전고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판문점시찰은 겨레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확고부동한 통일의지를 힘있게 선언한 혁사적사변이였다.

판문점은 조국통일을 위해

의 불멸의 업적이 안겨오고 그이의 조국통일유훈을 이루시려 헌신의 낮파 밤을 이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과 의지가 어려있는 혁사의 증견자이다.

판문점을 찾으신 그 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김일성주석님의 통일친필비를 돌아보시였다.

한평생 조국통일을 위해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의 업적을 추억하시며 장군님께서는 판문점에 무려 4차례나 나오시였다고, 수령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해 판문점에 친필비를 모시도록 하시였다고 가슴뜨겁게 추억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이시다.

돌이켜보면 분열의 상징인 판문점을 통일의 상징으로 만드시기 위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불면불휴의 로고를 다 기울이시였다.

언제나 심중에 조국통일문제를 안으시고 어떻게 하나 김일성주석님의 조국통일유훈을 실현하시려 모든 것을 다하신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의 조국통일업적을 전하는 친필비를 판문점에 세우도록 하시였다.

주체85(1996)년 11월 판문

점을 찾으신 날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한평생의 통일업적을 감회깊이 회고하시며 조국통일3대현장의 내용을 하나하나 정립해 주시였다.

절세위인들의 조국통일업적이 응축되어 있는 그곳에서 통일조국의 래일을 그려보시며 반드시 겨레에게 통일을 안겨주시려는 비장한 각오로 심장의 피를 끓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정전담판회의장과 정전협정조인장, 판문각과 통일각을 잘 보존관리하여 통일된 조국에서 살게 될 후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판문점에 조국통일을 위한 거룩한 자욱을 새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사적인

시찰을 통해 겨레는 또 한분의 민족의 령도자를 높이 모신 격정과 환희를 금치 못했으며 온 겨레의 숙망인 조국통일은 반드시 이룩된다는 확신을 가다듬었다.

남조선의 한 정세분석가는 《김정은최고사령관께서 판문각에서 쌍안경으로 남쪽을 내려다보시였다. 그 엄엄하고도 서리발같이 날카로운 모습에는 분열주의세력을 용서치 않겠다는 비장함이 혁력하였다. 이제 통일은 다 된것이나 같다.》고

자기 심정을 터놓았다.

그 어떤 엄혹한 정세나 반통일의 광풍속에서도 반드시 조국통일을 이루겠다는 확고부동한 의지가 내외에 엄숙히 파시되었고 천출위인을 모시여 조국통일은 반드시 이룩된다는 확신과 믿음이 겨레의 가슴속에 더 굳게 자리잡게 되었다는 여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단행하신 판문점시찰의 깊은 의미가 있다.

오늘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민족의 속원인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시려고 끝없는 로고의 날과 달을 이어가고 계신다.

미제와 남조선호전세력의 날로 가중되는 침략광기를 짓누를 수 있는 막강한 핵강국의 지위는 비활바없이 높아졌고 적대세력이 말만 들어도 벌벌 떠는 공화국의 군사적위력을 점점 더 강대해지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로선은 온 겨레의 한결 같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그이를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고 반드시 통일의 새 아침을 안아오려는 겨레의 의지도 날이 갈수록 더욱 강해지고 있다.

통일조국에로 이어진 령장의 힘찬 발걸음에 보폭을 맞춰 온 겨레는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으로 광명한 새날을 마중가고 있다.

본사기자 리경월

새해의 첫 아침에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주체102(2013)년 첫 아침 신년사에서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에 대한 열망과 기대를 안고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남녀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도 새해인사를 보내시였다.

조국통일을 더는 미

통일조국에 대한 굳은 확신

결하는 것은 외세에 어부지리를 주는 자멸행위로 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민족의 분렬을 더 이상 지속시켜서는 안 되며 우리 대에 반드시 조국을 통일하여야 한다고, 조국이 통일되면서 우리 서로 반목하며 대

면 우리 나라는 8천만

체 조선민족이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립장에 서서 전민족적위업인 조국통일의 대의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 신년사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리행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북과 남, 해외의 전

반만년의 유구한 혁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이 장장 70여년이나 외세에 의하여 분렬의 고통과 불행을 겪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민족의 수치이다. 나라와 민족마다 경쟁적으로 진보와 발전을 지향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 민족이 북과 남으로 갈라져 서로 반목하며 대

면 우리 나라는 8천만

명주솜은 겨울에는 따뜻한 감을, 여름철에는 서늘한 감을 주는 명주를 원료로 한다.

지금으로부터 3000여년 전부터 명주를 짜기 시작한 우리 선조들은 명주솜을 옷감과 이부자리의 재료뿐 아니라 갑옷과 같은 방어장구의 제작에도 리용하였다고 한다.

조국해방을 위한 항일대전의 나날 안에 두툼한 이불을 멋지게 누벼나가는 다침이불 누빔기, 넓은 재단탁우를 연방 오가며 비단천을 규모있게 펼쳐가는 연단기 도 현대적이고 능력도 대단하다. 현장이며 제품창고들에 그득그득 쌓이고 있는 이불들의 색깔과 무늬 또한 사람들의 정서와 미감에 맞으면서도 고상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이불의 종류도 겨울이불, 여름이불, 봄가을이불, 결혼식이불, 침대깔개, 아동이불 등 수십종이나 된다. 이불생산에 리용되는 명주솜과 비단천을 비롯한 자재도 다 우리 것이다.

이 모든 성과는 공장에

에서 인기가 있는 질 좋은 이불들을 광판 생산하여 야 한다고 하시였다.

지금 공장에서는 명주솜이 불포가 펼쳐지고 있다.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비단천 위에 아름다운 수를 새겨가는 자수기, 몇 초동

간에 두툼한 이불을 멋지게 누벼나가는 다침이불 누빔기, 넓은 재단탁우를 연방 오가며 비단천을 규모있게 펼쳐가는 연단기 도 현대적이고 능력도 대단하다. 현장이며 제품창고들에 그득그득 쌓이고 있는 이불들의 색깔과 무늬 또한 사람들의 정서와 미감에 맞으면서도 고상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이불의 종류도 겨울이불, 여름이불, 봄가을이불, 결혼식이불, 침대깔개, 아동이불 등 수십종이나 된다. 이불생산에 리용되는 명주솜과 비단천을 비롯한 자재도 다 우리 것이다.

인민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려고를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봄원은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령도에 의해 나날이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께서는 지난 고난의 행군시기 나라의 임업발전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인민 생활향상을 위해 마음쓰시였다.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려고를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봄원은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령도에 의해 나날이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

여러가지 질 좋은 이불들을 생산하는 현대적인 생 산공정을 꾸릴 것을 결심 하시고 해당한 조치를 취해주시는 원수님의 보살핌 속에 이루어졌다.

지금 공장에서는 명주솜이 불포가 펼쳐지고 있다.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비단천 위에 아름다운 수를 새겨가는 자수기, 몇 초동

간에 두툼한 이불을 멋지게 누벼나가는 다침이불 누빔기, 넓은 재단탁우를 연방 오가며 비단천을 규모있게 펼쳐가는 연단기 도 현대적이고 능력도 대단하다. 현장이며 제품창고들에 그득그득 쌓이고 있는 이불들의 색깔과 무늬 또한 사람들의 정서와 미감에 맞으면서도 고상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이불의 종류도 겨울이불, 여름이불, 봄가을이불, 결혼식이불, 침대깔개, 아동이불 등 수십종이나 된다. 이불생산에 리용되는 명주솜과 비단천을 비롯한 자재도 다 우리 것이다.

인민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려고를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봄원은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령도에 의해 나날이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께서는 지난 고난의 행군시기 나라의 임업발전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인민 생활향상을 위해 마음쓰시였다.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려고를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봄원은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령도에 의해 나날이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

민을 품에 안아 눈비바람을 다 막아주시고 자신의 천만로고와 헌신으로 염은 행복의 금방석에 인민을 앉혀주시는 강의하고 고마운 어버이이시다.

인민은 행복의 길만 걸게 하고 자신은 혁사가 기록하지 못한 길을 그리도 많이 걸으시며 천지개벽의 황금같은 열매들을 이땅이 무겁도록 쌓아주시고 오히려 인민 앞에서는 자책과 안타까운 심증을 피력하시는 너무도 겸허하신 인민의 령도자이시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서 생산되는 명주솜이 불포는 포근하고 아름답다. 그러나 그것을 어찌 물리화학적 성질로만 볼 수 있겠는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억척같이 지켜주시는 행복의 보금자리, 거기서 사는 인민을 따스히 감싸줄 사랑의 순길이기에, 남의 것이 아닌 우리의 것이기에 그리고 포근하게, 더 없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본사기자 김영춘

위대한 주체사상의 진수를 더욱 광범히 연구보급해 나가겠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이 결정 토로

우리 나라를 방문한 오기미 쟁이찌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은 주체사상을 심화발전시키여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여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김일성주석의 위업을 훌륭히 계승하신 김정일총비서께서는 혁령도의 전기간 조선을 승리에 이끄시였다.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압살책동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 사회주의위업을 굳건히 수

마음은 사회주의보루인 조선으로 향하고 있으며 광범한 대중은 사회주의를 신봉하고 주체의 진리를 터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위대한 주체사상의 진수를 광범히 연구보급하기 위한 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가겠다.

주체사상신봉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위원장께서 건강하시여 선대수령들께서 개척하시고 령도하여오신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계승완성해 나가기를 절절히 바란다.

본사기자

마음은 사회주의보루인 조선으로 향하고 있으며 광범한 대중은 사회주의를 신봉하고 주체의 진리를 터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위대한 주체사상의 진수를 광범히 연구보급하기 위한 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가겠다.

주체사상신봉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위원장께서 건강하시여 선대수령들께서 개척하시고 령도하여오신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계승완성해 나가기를 절절히 바란다.

본사기자



《요람을 흔드는 손이 세계를 움직인다.》는 말이 있다. 역사발전에서 노는 여성들의 역할에 대한 평가라고 할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수천년 인간으로서의 권리 를 빼앗긴채 천대와 멸시에 시달려왔다. 오죽하면 유럽의 한 철학자가 『남자로 태어날 수 있게 해준데 대하여 하느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했겠는가.

근대에 들어와 비로소 자기의 권리 를 행취하기 위한 여성들의 투쟁속에 3.8국제부녀절이 생겨났고 세계인권선언에 남녀평등에 관한 문구가 새겨지게 되었으며 여성의 권리보장을 위한 국제법규범들이 채택되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세계의 수많은 여성들이 남녀불평등과 무권리속에 『인형의 집』의 노라나 『노뜨르담대사원』의 에스메랄다, 『동백꽃아가씨』의 마르그리트와 같은 불행한 처지에서 허덕이고 있다.

이렇듯 『문명』과 『발전』을 떠들고 있는 서방나라들에서도 실지 남녀평등을 위한 여성들의 권리보장은 법전우의 법으로만 남아있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우리 민족사의 갈피를 보아도 봉건의 명예와 일제의 식민지 철쇄에 얹매여 살아도 죽은

녀성들의 삶의 화원

목숨이나 같았고 너자로 태어난 것으로 하여 천대만을 받아야 했던 무관리한 존재가 바로 여성들이였다.

『녀필종부』, 『삼종지도』, 『칠거지악』과 같은 것은 남존녀비의 봉건사회가 만들어낸것이였다. 오죽했으면 열두쪽무명치마가 눈물에 다썩었다는 노래까지 지어 불렀겠는가.

이 가슴아픈 역사에 영원히 종지부를 찍으신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이시다.

항일대전의 나날 여성중대를

조직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후날 여성중대의 탄생은 수천년동안 고질화되었던 남존녀비사상과 인습을 타파하고 여성들의 정신적지위와 사회적地位를 실제적으로 남성들과 동등한 수평선상에 올려세운 하나님의 사변이였다고 회고하시였다.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녀성해방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밝히시고 녀성문제해결에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보살 페심속에서 조선녀성들은 순에

총을 잡고 항일대전에 참가하여 군공을 세웠고 반미대전과 사회주의건설에서도 무비의 영웅적위훈을 창조할수 있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녀성

존중의 정치하에서 조선녀성들의 사회적지위와 역할은 더 높은 경지에 오르게 되였다.

절세위인께서 펼치시는 숭고한 사랑의 세계에서 105리의 머나먼 마라손주로를 맨 앞장에서 내달려 노도처 진구하는 공화국의 기상을 온 세상에 멀친 체육인도, 강의한 조선녀성들이라는 고귀한 칭호를 받아

안은 김철의 녀인들도 나왔으며 들끓는 협동별들과 생산의 동음 드높은 일터마다에서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 강국건설의 터전을 힘차게 다져온 조선녀성모두의 삶이 지켜지고 빛내여지게 되였다.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조선녀성들의 존엄과 영예는 더욱 빛나고있다.

해마다 어머니날을 맞을 때면 온 나라 어머니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

여성들을 더없이 귀중한 존재

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슴부풀어오른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이 땅에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얼마나 뜨거운 화폭들이 펼쳐지고 있는것인가.

한명 한명의 감나무중대 녀성군인들과 사진을 찍으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과 행복속에 울고웃던

여성군인들의 모습.

새 집을 받아안은 한 직포공

의 집을 친부모들보다 먼저 찾

으시여 한식술처럼 사랑의 기

념사진을 찍으시고 몸소 건설

주, 시공주가 되시여 녀성방직

공들과 제사공들을 위한 최상

급의 학숙들을 건설하도록 하

시고 생활의 보금자리에 든 주

인공들의 밝은 미래를 축복하

시여 사랑의 연회도 마련해주

신 감동깊은 사실들, 새로 견

설한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를 비롯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여성들에게 베푸신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들은 수 없이 많다.

위대한 태양의 빛발아래 이 나라 여성들은 남성들과 어깨 나란히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만리마속도를 창조하고 있다.

녀자축구선수들은 새로운 축구선화를 창조하며 훈련길을 쉬임없이 달리고 있으며 여성초음속전투기비행사들은 성스러운 조국수호의 항로우에 애국충정의 비행운을 새기고 있다. 과학기술강국건설의 길우에도 재능있는 여성과학자들이 서있다.

하기에 공화국의 현실을 목격한 유럽의 한 여성인사는 다시 태여난다면 조선녀성으로 태여나고싶다고, 공화국이야 말로 여성의 권리가 참답게 보장되고 여성의 존엄이 가장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되는 여성들의 천국, 어머니들의 리상국이라고 하였다.

오늘 공화국에서는 『여성은 꽃이라네』, 『사랑하시라』, 『우리 집사람』과 같은 여성의 노래들이 어디서나 들려온다.

위대한 령도자의 품속에서 가정의 꽃, 사회의 꽃, 나라의 꽃으로 떠받들리우는 조선녀성들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한 평창과 여성중시, 여성존중의 화원을 펼쳐준 고마운 조국에 대한 감사의 노래가 메아리치고 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김철진



녀성들의 모습에 비낀 사회상

남편과 한전호에 선 심정으로 조국보위의 밀거름이 되고 있는 군관의 안해들, 나라의 정사를 맡아보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온 나라가 다 아는 영웅으로, 박사로, 인

민체육인으로, 로력혁신자로 삶을 빛내이는 여성들, 그들의 웃음속에 공

화국의 공민된 궁지와 자

부심이 넘쳐나고 있다.

가는 곳마다 탁아소와

유치원, 현대적인 기초

식품공장, 식료품가공기

지, 급양봉사망들이 구

려져 가정일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주의보건

체도의 혜택속에 평양산

원 유선종양연구소와 같

은 현대적인 병원들에서

여성들 모두가 무상치료

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

지난날 봉건의 질곡속

에 신음하면서도 항변 한

마디 못하고 살아온 조선

여성들이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품속에서 사회

의 당당한 주인으로 평등한 권리 를 행사하며 행복하고 보람찬 삶을 마음껏 향유하고 있다.

하기에 얼마전 공화국을 방문했던 유럽의 어느 나라 여성은 값높은 존엄과 권리 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빛내여가는 공화국 여성들의 모습을 목격하고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조선녀성들이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여 값높은 삶을 향유해가는 모습에 깊이 감동되었다. 들키에도 처음인 남녀평등권법령이 벌써 70여년전에 채택되고 지난날 친대와 멸시의 대상으로 되여 오던 조선녀성이 오늘 국가와 사회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랑스럽고 힘있는 존재로 되고 있는 조선의 현실은 이 나라야말로 여성들의 천국, 여성들의 러원이라 확신을 더욱 굳게 해준다.』

그러나 여성이라고 하여 누구나 아름다움의 상징인 꽃으로 사랑받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것은 아니다.

『오늘도 집에 오니 엄마는 보이지 않는다. 시꺼먼 때가 들어붙은 부엌, 식구끼리 오순도순 함께 밥을 먹은지가 까마득하다. 여전히 엄마는 문을 꾹 잠그고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 비틀거리는 엄마에게 향상 술냄새가 났고 어찌다 마주치면 술을 찾는듯 온 집안을 헤매고 다닌다. 나를 사랑해 주던 엄마의 따뜻한 눈빛을 읽은지 오래다.』

이것은 어머니가 알콜 중독자인 남조선의 어느 한 중학교학생의 하소연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술취한 엄마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수수께끼처럼 남조선에서는 수많은 여성들이 어머니로서의 고상한 삶을 포기한 채 절망과 타락의 나락에서 몸부림치고 있는것인가.

남조선이 세계최악의 여성인권유린사회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있다. 남조선에서는 사회적으로 적극 보호를 받아야 할 여성들이 여성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차별시되고 버림받고 생존의 권리를 빼앗기고 있다.

남조선에서 여성취업률은 매우 낮으며 그나마도 여성취업자의 3분의 2가 비정규직로 동자이다. 여성로동자들의 70%는 로동조건이 매우 한심한 상태에서 일하고 있다. 남조선여성들은 남성들과 똑같은 일을 하 고도 이중삼중의 차별을 받고 있다.

그대의 손에서 해빛밝은 일터에 가없는 직기바다 흰머리수건을 쓴 방직공 만리마를 타고 달리네 바다우를 나는 갈매기의 나래침 이런가 직기의 동음에 맞추어 기대사이를 들고돌며 잽싸게 고운손 놀리는 방직공

그대의 손에서 해빛밝은 일터에 가없는 직기바다 흰머리수건을 쓴 방직공 만리마를 타고 달리네 바다우를 나는 갈매기의 나래침 이런가 직기의 동음에 맞추어 기대사이를 들고돌며 잽싸게 고운손 놀리는 방직공

그대의 손에서 해빛밝은 일터에 가없는 직기바다 흰머리수건을 쓴 방직공 만리마를 타고 달리네 바다우를 나는 갈매기의 나래침 이런가 직기의 동음에 맞추어 기대사이를 들고돌며 잽싸게 고운손 놀리는 방직공

그대의 손에서 해빛밝은 일터에 가없는 직기바다 흰머리수건을 쓴 방직공 만리마를 타고 달리네 바다우를 나는 갈매기의 나래침 이런가 직기의 동음에 맞추어 기대사이를 들고돌며 잽싸게 고운손 놀리는 방직공

그대의 손에서 해빛밝은 일터에 가없는 직기바다 흰머리수건을 쓴 방직공 만리마를 타고 달리네 바다우를 나는 갈매기의 나래침 이런가 직기의 동음에 맞추어 기대사이를 들고돌며 잽싸게 고운손 놀리는 방직공

그대의 손에서 해빛밝은 일터에 가없는 직기바다 흰머리수건을 쓴 방직공 만리마를 타고 달리네 바다우를 나는 갈매기의 나래침 이런가 직기의 동음에 맞추어 기대사이를 들고돌며 잽싸게 고운손 놀리는 방직공

그대의 손에서 해빛밝은 일터에 가없는 직기바다 흰머리수건을 쓴 방직공 만리마를 타고 달리네 바다우를 나는 갈매기의 나래침 이런가 직기의 동음에 맞추어 기대사이를 들고돌며 잽싸게 고운손 놀리는 방직공

그대의 손에서 해빛밝은 일터에 가없는 직기바다 흰머리수건을 쓴 방직공 만리마를 타고 달리네 바다우를 나는 갈매기의 나래침 이런가 직기의 동음에 맞추어 기대사이를 들고돌며 잽싸게 고운손 놀리는 방직공

그대의 손에서 해빛밝은 일터에 가없는 직기바다 흰머리수건을 쓴 방직공 만리마를 타고 달리네 바다우를 나는 갈매기의 나래침 이런가 직기의 동음에 맞추어 기대사이를 들고돌며 잽싸게 고운손 놀리는 방직공

그대의 손에서 해빛밝은 일터에 가없는 직기바다 흰머리수건을 쓴 방직공 만리마를 타고 달리네 바다우를 나는 갈매기의 나래침 이런가 직기의 동음에 맞추어 기대사이를 들고돌며 잽싸게 고운손 놀리는 방직공

그대의 손에서 해빛밝은 일터에 가없는 직기바다 흰머리수건을 쓴 방직공 만리마를 타고 달리네 바다우를 나는 갈매기의 나래침 이런가 직기의 동음에 맞추어 기대사이를 들고돌며 잽싸게 고운손 놀리는 방직공

그대의 손에서 해빛밝은 일터에 가없는 직기바다 흰머리수건을 쓴 방직공 만리마를 타고 달리네 바다우를 나는 갈매기의 나래침 이런가 직기의 동음에 맞추어 기대사이를 들고돌며 잽싸게 고운손 놀리는 방직공

그대의 손에서 해빛밝은 일터에 가없는 직기바다 흰머리수건을 쓴 방직공 만리마를 타고 달리네 바다우를 나는 갈매기의 나래침 이런가 직기의 동음에 맞추어 기대사이를 들고돌며 잽싸게 고운손 놀리는 방직공

그대의 손에서 해빛밝은 일터에 가없는 직기바다 흰머리수건을 쓴 방직공 만리마를 타고 달리네 바다우를 나는 갈매기의 나래침 이런가 직기의 동음에 맞추어 기대사이를 들고돌며 잽싸게 고운손 놀리는 방직공

그대의 손에서 해빛밝은 일터에 가없는 직기바다 흰머리수건을 쓴 방직공 만리마를 타고 달리네 바다우를 나는 갈매기의 나래침 이런가 직기의 동음에 맞추어 기대사이를 들고돌며 잽싸게 고운손 놀리는 방직공

그대의 손에서 해빛밝은 일터에 가없는 직기바다 흰머리수건을 쓴 방직공 만리마를 타고 달리네 바다우를 나는 갈매기의 나래침 이런가 직기의 동음에 맞추어 기대사이를 들고돌며 잽싸게 고운손 놀리는 방직공

그대의 손에서 해빛밝은 일터에 가없는 직기바다 흰머리수건을 쓴 방직공 만리마를 타고 달리네 바다우를 나는 갈매기의 나래침 이런가 직기의 동음에 맞추어 기대사이를 들고돌며 잽싸게 고운손 놀리는 방직공

그대의 손에서 해빛밝은 일터에 가없는 직기바다 흰머리수건을 쓴 방직공 만리마를 타고 달리네 바다우를 나는 갈매기의 나래침 이런가 직기의 동음에 맞추어 기대사이를 들고돌며 잽싸게 고운손 놀리는 방직공

그대의 손에서 해빛밝은 일터에 가없는 직기바다 흰머리수건을 쓴 방직공 만리마를 타고 달리네 바다우를 나는 갈매기의 나래침 이런가 직기의 동음에 맞추어 기대사이를 들고돌며 잽싸게 고운손 놀리는 방직공

침략자들에게 차례질 것은 무자비한 불벼락뿐

공화국의 거듭되는 경고와 내외의 강력한 항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호전 광들이 미국과 야합하여 북침 전쟁 연습인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 군사 연습을 끝내 강행하는 길에 들어섰다. 3월 1일부터 4월 말 까지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의 북침 전쟁 연습 소동에는 남조선 강점 미군과 해외로부터 증강되는 미군 병력, 남조선 군과 여러 추종 국가의 병력을 포함하여 폐년에 없이 방대한 침략 무력이 참가하게 된다고 한다.

그런가하면 팜도의 앤더슨 공군 기지에 등지를 틀고 있는 《B-52》, 《B-1B》를 비롯한 핵 전략 폭격기들과 주일 미군 기지에 도사리고 있는 스릴스 전투기들인 《F-22》, 《F-35B》, 핵 항공 모함 《로날드 레이건》호, 서태평양 수역을 돌아치고 있는 핵 항공 모함 《칼빈슨》호 등 미국의 핵 전략 자산들이 대대적으로 쓸어들게 된다고 한다.

이미 조선 반도와 그 주변에 기동 전개된 미국의 수많은 살인 작전 집단들과 핵 타격 수단들이 북침 공격을 위한 출발 진지에로 기동을 시작하였다.

지금内外호전 세력들은 《년례적》이며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떠들어대던 외파마저 완전히 벗어던지고 이번 연습이 공화국에 핵 선제 타격을 가하려는데 있다고 로골적으로 떠들어대면서 그 실행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지어 호전 세력들은 올해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 군사 연습에서 공화국에 대한 선제 타격을 노린 《4D 작전》을 보다 구체화하는 동시에 고고도 미사일 방위 체계 《싸드》 배비를 가상

한 훈련까지 실시할 것이라고 빼앗아 표하였다. 나아가서 호전 세력들은 공화국의 핵, 미사일 기지들에 대한 《예방적 선제 타격 개념》을 적용한 대규모 《통합 학력적 멸훈련》을 벌리며 《전시 상황》을 정리하는 《안정화 작전》 까지 일정에 포함시키겠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불장난 소동이 미국이 지난해 말부터 남조선에 600만 t 이상의 탄약과 장비들을 비밀리에 끌어들이고 최근 남조선 강점 미군 기록들과 미국 시민권을 가진 체류자들을 긴급 대피시키기 위한 대책 까지 세워놓은 상태에서 감행되는 것으로 하여 그 위험성이 더 커지고 있다.

옹근 한개 전쟁을 치를 병력과 핵 무장 장비가 동원되어 벌어지는 이번의 대규모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 군사 연습은内外호전 세력들이 조선 반도에서 전쟁을 기정 사실화하고 그것을 실전에 그대로 응용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죽대우에 오른 민족이 마냥 기고만장하여 허장 성세하는内外호전 세력들의 무분별한 망동은 지금 공화국 군대와 인민들의 치솟는 분노와 복수심을 자아내고 있다.

공화국은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핵 위협과 공갈이 계속되는 한 그리고 공화국의 문전 앞에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북침 전쟁 연습을 또다시 강행해나선 이상 말로가 아니라 초강경 행동으로 맞서나갈 것이라는 강경한 립장을 천명하였다. 이것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공화국을 적대시하며 반공화국 대결에 미쳐 날뛰는内外호전 세력들은 저들의 무모한 전쟁 소동이 조선 반도와 지역에 초래할 데 이킬 수 없는 엄중한 후파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고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선제 타격은 그 누구의 특허 품이 아니며 핵도 전매 품이 아니다.

나라의 안전과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가지고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공화국 군대와 인민이다.

조선 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려는 공화국의 평화의 지적인 노력과 인내심을 나약성으로 오婉하고 침략의 무리들이 이 땅에서 감히 불질을 해댄다면 그가 누구이든 지구상 그 어디에 있든 무자비하게 징벌하려는 공화국의 의지와 결심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없다.

공화국 군대와 인민이 치르고 있는 반미 대결 전은 침략의 원흉인 날강도 미국은 물론 그에 추종하는 온갖 어종이며 종이들도 깨끗이 쓸어버리기 위한 정의의 성전이다.

상전을 등에 업고 분수 없이 날뛰는 남조선의 호전 광들은 북침 전쟁에 날뛰다 제명을 다 못산자들의 비참한 운명을 되새겨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 세력들이 공화국을 위협하고 북침 전쟁 소동에 광분할 수록 나라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공화국의 초강경 대응도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본사기자 류현철

남조선의 군부 세력들이 민족의 한결 같은 규탄에 불구하고 침략적 격에도 불구하고 침략적 인 《싸드》를 하루빨리 끌어들이려고 분주 향을 펴우고 있다. 알려진 것처럼 2월 28일 남조선 군부는 롯데 그룹과 성주 끌프장에 《싸드》를 배치하는 대신 경기도 남양주시의 군 용부지를 롯데 그룹에 이전하는 맞교환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래 롯데 그룹은 저들의 끌프장을 《싸드》 배치지로 내주게 되면 주변 나라의 제재로 기업 운영에 막대한 손실을 보는 것으로 하여 선뜻 결심을 내리지 못하였다. 그런데 미국의 추동을 받은 남조선의 군부가 성주 끌프장을 군사시설 보호구 역으로 지정하는 것과 함께 민간인들의 접근을 막고 《싸드》 부지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400여 명의 병력과 수송 직승기를 동원하여 주변을 철조망으로 봉쇄한다. 어쩐다 하며 소란스럽게 놀고 있다. 남조선에서 《정권》이 바뀌기 전에 말썽 많은 《싸드》를 배치하려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벌리는 남조선 군부는

지금 남조선 군부는 1~2개 월 동안 성주 끌프장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를 진행하고 부지의 주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4개의 《싸드》 포대 중 1개를 넘겨 받아 배치 하려 하고 있다. 이로부터 군부 세력들은 성주 끌프장을 즉시 군사 보호구 역으로 지정하는 것과 함께 민간인들의 접근을 막고 《싸드》 부지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400여 명의 병력과 수송 직승기를 동원하여 주변을 철조망으로 봉쇄한다. 어쩐다 하며 소란스럽게 놀고 있다. 남조선에서 《정권》이 바뀌기 전에 말썽 많은 《싸드》를 배치하려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벌리는 남조선 군부는

전세력의 망동은 스스로 제 목을 조이는 자살적 행위이다.

남조선의 호전 세력들이 《싸드》가 공화국의 그 무슨 《도발》과 《위협》에 따른 것이라고 광고하지만 그것은 한갓 민심기만극이고 궤변이다. 사실상 《싸드》는 겸종

우세를 차지하기 위해 배치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 세력들의 《싸드》 배치 놀음은 조선 반도와 지역 정세의 파국을 초래하는 것으로 주변 나라들의 커다란 반발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주변 국들 속에서 만약 《싸드》가 실제 배치된다면 남조선의 성주는 자기 나라들의 전략 핵 미사일 부대인 로케트 군 타격 목표가 될 것이라 는 강경 어조들이 쏟아지는 속에 그 나라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남조선의 기업들이 상품 불매 운동으로 하여 커다란 타격을 받고 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 없이 침략적인 외세의 돌격 대가 되어 렇도도 서슴없이 침략 기지로 내맡기는 사대 매국 노들의 망동으로 남조선 인민들은 국적 불명의 미사일의 세례를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싸드》 배치 망동이 애말로 호박 쓰고 돼지 우리에 들어가는 격의 어리석은 놀음이다.

경제와 민생, 안보에 돌이킬 수 없는 재난적 후파를 초래하게 될 것이 뻔한데 미국 상전을 위해 《싸드》를 기어이 끌어들이려고 하는 남조선의 친미 역적들이 애말로 박근혜와 함께 당장 저승에 보내야 할 죄악의 무리들이 라 해야 할 것이다.

본사기자 김응철

대결 광들의 부질없는 발버둥

최근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가 비상히

강화되는데 절집한 남조선 통치자들이 외세와의 반공화국 대결 공조 강화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떠칠 전 남조선당국은

미국, 일본의 6자회담 수석 대표들과 그 무슨 3자협의 회의는 것을 벌려놓고 《북의 핵 및 미사일, 학 학무기 위협》을 운운하며 《국제 사회의 강력한 압박과 대응》에 대해 모의하였다.

외세와 아합하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남조선의 현 보수당국의 매국 반역책 동은 절정에 달하고 있다.

남조선의 보수당국은 찍으면 공화국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 조치를 《도발》과 《위협》으로 결코 들며 하루가 멀다 하게 외세와 마주 앉아 《대북 공조 강화》를 추구하는 불순한 모의 판들을 벌

려놓고 있다. 이번에 열린 미, 일, 남조선 6자회담 수석 대표들의 3자협의 회의는 것도 상전과 주구들 사이에 분주스럽게 벌어지는 반공화국 쓱터 공론의 한 실례일 뿐이다.

핵 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공화국의 군력 강화는 철두 철미 날로 가증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북침 전쟁 위협과 핵 공갈에 대처한 지극히 정당한 자위적 조치이다. 그것은 나라의 최고 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공화국의 합법적인 주권 행사로서 그 누구도

인간 중심의 정치 아래 인민의 리상이 눈부신 현실로 실현되어 가고 있는 공화국에서는 가는 곳마다에 근로인민 대중을 위한 기념비적 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 세세년 꿈으로만 그려보았던 행복의 무릉도원이 활짝 꽂혀나고 있다.

사회주의 제도의 본성으로

보나, 국가의 뜨거운 인민사랑의 정치로 보나 공화국에서

는 《인권 문제》라는 것이 영

원히 있을 수 없다. 세계 최악의 가장 혐악한 인권 유린자 대는 외세가 판을 치고 반역 통치자들이 인민 후에 군림하고 있는 남조선이다.

《정권》은 있어도 자기 인민이 아니라 외세를 섬기는 《정권》이고 권력도 사대국 노들의 특권적 지위와 리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남조선은 날이 갈수록 수천만 근로 대중의 자주권과 존엄, 생존권이 참혹하게 유린당하는 인권 수령자 대로 화하고 있다.

더우기 《유신》 독재자의 후예인 박근혜의 파쑈, 반인권 독기가 물안개처럼 뒤덮여 단폐의 지우파 같이 변해버린 것이 오늘의 남조선이다.

남조선에서 《끌내자 박근혜 집권 4년》을 웨치며 련일 벌어지고 있는 각계층 인민들의 초불투쟁은 인권의 황무지, 민주의 폐해지 대로 전변된 남조선의 현실에 대한 뚜렷한 반증으로 된다.

온 남조선 땅을 사람 못 살인 권리 모자로 전락시킨 범죄자들이 그 누구의 《인권》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락원과 지옥도 분간 못하는 천하백치의 너두리이며 세상을 웃기는 정치 민화가 아닐 수 없다.

민족을 등지고 외세에 빌붙으며 반공화국 압박 책동에 광분하는 남조선당국의 추악한 정체는 다시금 날날이 드러났다.

남조선당국이 외세와의 반공화국 대결 공조로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력의 도수를 높이기 위해 《인권》 모략 소동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사실이다.

지금 남조선당국은 유엔 인권 회의 제 34차 회의에서 추악한 인간 쓱터 기들을 내세워 모략과 날조로 일관된 《북인권 실태》에 대해 《증언》하는 놀음을 벌리며 외세와 작당하여 《북인권 결의안》이라는 것을 또다시 채택하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 있다.

인권은 사회적인 간의 자주적 권리이다. 인민 대중의 자주적 권리 를 가장 친밀하게 보장해주는 나라는 이 세상에 오직 공화국밖에 없다.

인간 중심의 정치 아래 인민의 리상이 눈부신 현실로 실현되어 가고 있는 공화국에서는 가는 곳마다에 근로인민 대중을 위한 기념비적 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 세세년 꿈으로만 그려보았던 행복의 무릉도원이 활짝 꽂혀나고 있다.

남조선당국과 일본이 일본 군성 노예 소녀 상 철거 문제를 두고 마찰을 빚어온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최근에는 일본의 오만무례한 책동과 도적의 매를 드는 격의 강도적 요구가 날로 더욱 우습해지고 있다.

일본 군성 노예 문제에 대해 《사죄 할 생각이 럴 끝 만큼도 없다》느니, 《돈을 받았으면 소녀상을 철거하라》느니 하고 내놓고 호통을 쳐대면서 압을 가하고 있는 형편이다.

파거 20만 명의 조선녀성들을 강제 련행하여 전쟁터에 끌고 다니면서 꽃 같은 청춘을 무참히 짓밟고 치열리는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천하의 패륜파 덕한, 악한의 무리들이 지금 일본 군성 노예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떠들고 있는 것은 날강도의 몬타이며 철면피의 극치, 침략의 력사를 되풀이 하려는 과정 한 망동이 아닐 수 없다. 일본 군성 노예 소녀상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

이 남조선에서 기정 사실

천년 숙적이 호통친다

3.1 민족 98년을 계기로 남조선 각계에서 반일기운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가고 있는 지금 불법 비법의 《위안부 합의》 리행을 강박해 나서고 있는 일본과 그에 적극 추종해 나서고 있는 남조선당국의 책동이 민심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다.

남조선당국과 일본이 일본 군성 노예 소녀 상 철거 문제를 두고 마찰을 빚어온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바로 얼빠진 남조선당국이 일본과 매국 반역적이며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를 이루고 몇 푼의 돈에 민족의 존엄을 팔아버렸기 때문이다. 하기야 원래 친일의 뿌리에서 돋아난 독버섯과 같은 박근혜 《정권》이 고보면 별로 놀라울 일도 아니다. 일제의 가장 추악한 반인륜 범죄를 비호 두둔하고 일본이 운운하는

《군위 안부 문제》의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에 맞장구를 쳐주다 못해 박근혜 보수派은 일본 군성 노예 소녀상에 폭발시키고 있다. 《전국민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들이 높이 울려 나오고 있고 온 겨레도 격분을 표시하고 있다.

현실은 박근혜 보수派이야말로 민족의 존엄과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죄악의 무리들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본사기자 김련옥



남조선에서 해를 넘겨가며 몇 달 동안 숨가쁘게 달려온 박근혜 탄핵 협차가 종착점을 가까이하고 있다. 지난달 27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최종변론이 있었으며 앞으로 며칠 내내 박근혜 탄핵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고 한다.

지금 남녘의 대세는 박근혜 탄핵이다. 《헌법재판소》도 다르게 결정할 수 없다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

박근혜를 다시는 솟아날 수 없는 파멸의 함정으로 깊숙이 몰아가고 있는 결정적 힘은 어디에 있는가.

초불민심의 힘

이미 수개월 전에 특등 범죄자인 박근혜에게 정치적 사형선고를 내리고 지금 이 시각 탄핵과 법적 징벌의 마지막 함정에 몰아넣고 있는 가장 주되는 힘은 초불로 상징되는 민중의 힘이다.

한두 개의 초불은 바람이 불면 꺼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초불이 열매로 되고, 만, 10만, 100만이 되어 타오르면 그 어떤 광풍이 불어도 꺼지지 않으며 그 불길은 독재의 아성

《박근혜 탄핵》을 결정하는 힘

도 집어삼키게 된다. 지금 남조선에서 초불은 어둠을 밝히는 강력한 빛으로 되고 있다. 불의를 이기는 정의의 힘으로 되고 있다.

연 수개월째 18차를 기록하며 줄기차게 타오르는 초불의 힘에 의해 결국 박근혜는 《국회》에서 탄핵당하는 신세가 되었으며 특검조사와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받아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남조선의 초불민심은 박근혜의 무조건적인 탄핵과 응당한 법적 징벌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만일 《헌법재판소》가 민의에 어긋나는 다른 판결을 내린다면 그에 승복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박근혜를 끝까지 탄핵시키겠다며 마음들을 벼리고 있다.

박근혜 퇴진과 어둠이 없는 밤은 새세상을 안아오기 위해 수개월째 혹심한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초불광장에 너도나도 달려나간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이기에 오늘에 와서 최후발악하는 어둠의 세력

에 의해 불의와 온갖 악의 대명사인 박근혜가 탄핵을 모면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절대로 용납치 않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민심이 사형선고를 내린 박근혜를 이제 되살린다는 것은 무서운 바다의 격랑을 손바닥으로 막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어리석은 일이다.

진실의 힘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이것은 남조선의 초불집회장들에서 계속 울려나오고 있는 각 계층 인민들의 웨침이다.

거짓은 그 무엇으로도 통할 수 없고 역사의 진실은 언제든지 밝혀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거짓은 폐하고 진실은 승리한다.

남조선에서 모두의 원성과 배격을 사고 있는 박근혜는 거짓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그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자기의 온갖 범죄행위들을 마지막 까지 부인하며 거짓말로 남조선인민들을 우롱해온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지

은 죄를 책에 적어 쌓으면 하늘에라도 닿으련만 천하악녀는 눈썹 하나 까딱 안하고 그 모든 죄악을 그 누군가의 《거짓말로 쌓아진 커다란 산》이라며 철면피한 넉두리를 늘어놓았었다.

《헌법재판소》에 서면으로 보낸 최후진술이라는데서도 또 다시 거짓과 파렴치의 극치를 보여준 청와대 악녀이다. 그 황당하고 불법 무도한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는 없는 것이다.

이기는 것은 진실이다. 남녘의 수백수천만 인민들은 그 누구의 선동에 의해 초불집회에 나와 박근혜 탄핵을 웨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파쑈와 부폐, 반인민적 악정의 몸서리치는 4년의 총화에 기초한 쌓이고 쌓인 울분의 폭발이며 그 무엇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박근혜의 온갖 죄악의 실상에 대한 객관적인식에 기초하여 터져 나오고 있는 분노와 배격의 목소리들이다. 《이제 나 라냐.》 하는 모두의 입에

서 터져 나오는 이 한마디 사를 진행해야 한다.》 고의 절망과 개탄, 분노의 말 속에도 박근혜가 저지른 천인공노할 죄악이 다

드러나 있다. 진실은 감출 수 없고 죄악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박근혜의 만고죄악은 날 날이 드러나 더 론할 여지도 없게 되었다.

특검에서 드러난 범죄 혐의의 일부만 가지고서도 박근혜는 탄핵의 신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죄에 벌을 가하는 법의 리치대로 하면 박근혜는 열번도 더 탄핵대상이다.

지금 남조선에서 여론은 박근혜가 퇴진당하고 구속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른들도 이렇게 말하고 아이들도 말하며 진보도 말하고 보수도 말 한다.

최근 남조선의 여론조사 기관들이 발표한데 의하면 탄핵 찬성여론이 반대여론의 4배 이상에 달하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박근혜를 법파 원칙에 따라 구속수

를 진행해야 한다.》 고 한 응답자도 76.5%에 달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박근혜의 《콩크리트지지층》으로 불리워온 60살이상의 늙은 이들 속에서도 년의 구속수사를 압도적으로 요구하고

보수의 아성인 경상도 지역에서도 주민의 58.6%가 박근혜 구속을 요구해 나서는 판이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언론, 전문가들은 《대세가 탄핵인용으로 흐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 평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보수언론들을 포함하여 대다수의 언론들도 박근혜의 특대형 부정추문의혹을 경쟁적으로 들추어내며 탄핵여론 조성을 편승하고 있는 것도 지난 시기와의 사뭇 다른 엄연한 현실로 되고 있다.

세계 그 어느 지역에서도 볼 수 없는 남조선에서의 특대형 정치추문사건은 온 세계의 관심과 조롱거리로 되어왔다. 이제는 세인이 한결같이 박근혜를 엄청난 부정추문사건을 저지른 《꼭두각시대

통령》, 독재자로 인식하고 있으며 퇴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심지어 상전인 미국까지도 박근혜를 이미 죽은 목숨으로 대하면서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 남조선 사회와 세계의 여론은 이처럼 박근혜 탄핵을 당연한 것으로, 꼭 그렇게 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 *

지금 박근혜는 어떻게 하나 살아보겠다고 최후 발악하고 있지만 대세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그를 동정하고 《지지하여》 나서는 것은 사물판단도 제대로 못하는 일부 늙다리 보수깡패들, 박근혜가 죽으면 자기들도 따라 죽을 수밖에 없는 《자유한국당》의 몇몇 멀거지들뿐이다.

반면에 박근혜를 탄핵의 시궁창에 내보는 힘은 너도 강하다. 온갖 불의와 악의 대명사이면서도 다 늙고 맥빠진 박근혜가 탄핵의 거센 힘, 정의의 억센 힘에 떠밀려 《대통령》 자리에서 끌려내려 오고 손에 수갑을 차는 것은 달리는 편수 없는 필연적인 운명이다.

본사기자 김철민



북남관계를 마사놓은 대결광의 종착점

남조선에서 박근혜에 대한 《대통령》 탄핵이 눈앞에 다달았다.

이번 남조선의 《대통령》 탄핵 문제는 북남관계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왜냐면 박근혜의 죄악 중 하나가 국도의 대결정책으로 북남관계를 지금과 같은 파국의 국면에 몰아넣은 죄악이고 그로 해서 역도는 더욱 민심의 증오를 받고 탄핵의 무대에도 서게 되었기 때문이다.

6.15의 육동자이고 화해와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해버린 죄악 하나만으로도 박근혜는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개성공업지구 사업은 단순히 상품을 만들어 돈을 버는 일이 아니었다. 민족이 화해하고 뜻과 힘을 합쳐야 통일이 이루어지고 민족의 공동번영도 안아올 수 있다. 그것을 일깨워준 소중한 사업이었다.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했던 남측 기업인들도 경제적 타산

에 앞서 《분단민족의 한 성원으로서의 통일사명감》을 안고 공업지구에서 기업을 운영해왔다.

그런데도 모든 것을 돈으로만

사고하는 미친 박근혜 《정권》은 북남관계의 그 한가닥 숨줄기마저 끊어놓아 화해와 협력사업을 통채로 망쳐놓고 전쟁위험만 한껏 고조시키었다.

이뿐이 아니다.

안으로는 통합진보당과 같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 개선을 주장하는 통일애국단체들을 《종북》의 감투를 뒤집어씌워 탄압하고 각계층의 통일회합과 통일운동을 차단하였으며 밖으로는 외세의 발뒤꿈치에 매달려 동족에 대한 고립압살에 피눈이 되어 날뛰 것도 박근혜 역적파당이다.

미국과 야합하여 북침핵전쟁연습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리면서 민족의 머리 위에 미국에 의한 핵전쟁위험을

질게 드리운 것 역시 역적파당이 저지른 용서 못 할 죄악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 호전 광들은 미국과 함께 북침선제타격을 노린 대규모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의 평을 끌끌내 올리는 것으로써 조선민족의 평화지향에 찬물을 끼얹고 겨례의 운명을 시시각각 위협해나서고 있다. 친미호전분자인 박근혜에 의해 조선반도에서의 전쟁위험은 파거보다 훨씬 더 증대되였다.

남조선인민들을 비롯한 온 겨례 앞에 이런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만고역적이 탄핵 심판의 단두대에 올라 마지막 막춤을 물어쉬게 된 것은 너무도 응당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죄는 지은데로 간다고 온 겨례의 저주를 받는 박근혜 역도에게 차례질 것은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파멸의 운명밖에 없다.

리어금

지난 2월 20일 남조선 《통일연구원》이 《통일예측시계》라는 것을 발표하였다. 이 시계는 두 가지 즉 《합의형통일시계》와 《한국주도형통일시계》로 되어 있는데 《12시에 다가갈수록

〈통일환경〉이 좋아지고 〈통일〉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표시시다.

하는 것이라고 한다.

《통일연구원》은 2009년 부터 해마다 《통일, 외교, 안보분야의 전문가》들과 북남협력교류관계자들, 대학생, 일반주민 등 1 000여 명을 대상으로 북남관계와

통일문제, 군사 및 대외관계문제 등의 12 가지 물음에 100점으로 한 대답에 기초하여 《통일예측시계》를 만들어 발표해 오고 있다.

물론 이 시계는 제대로

된 시계가 아니라 비뚤어진 《흡수통일》 시계이다. 이번에 발표된 《2016년 통일예측시계》는 시간이 지난 시기보다 훨씬 후퇴한 것으로 나타나 《통일외교》나 《북봉파추진》을

공화국을 각방으로 압박하

고 제재하여 《봉파》를 통한 《체제통일》을 기도 한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였다. 될 수도 없는 일을 가지고 박근혜는 시간만 빙비했고 저에게 돌아온 것은 국도의 대결광, 반통일 분자 이라는 치욕의 락인뿐이다.

역도년의 지난 4년 《치적》이 모든 분야에서 파탄과 위기, 혼란만을 가중시켜온 범죄의 4년이라는 것 이 남김 없이 확증되고 박근혜가 파멸의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통일예측시계》는 《흡수통일》은 이를 수 없는 망상이며 동족대결에 미쳐 날뛰다가는 파멸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

본사기자 김영진

림종에 처한 악녀의 라상을 본다

지금 세상사람들앞에는 훌륭한 청와대 악녀가 서 있다.

사람인지 짐승인지, 알 몸을 송두리채 드러낸 채 아무런 수치심도 창피도 느끼지 못하고 태연자약하게 미소짓는 박근혜, 그 역스러운 몰골을 보느라면 남조선이 원시시대로 한참 돌아간 것 같고 인류가 생겨나기 이전의 렬부숭이이다.

초불로 비쳐진 더러운 알몸

초불은 어둠을 밝혀준다. 수개월째 천수백만명의 참가하여 활활 타오르고 있는 초불, 남녀의 어디서나 보이고 모두의 손에 든 초불은 지금껏 가리워지고 은폐되었던 어둡고 침침하고 썩 어문드러진 모든 실체들을 추어내며 이 《정권》이 무엇을 위한 《정권》이고 이 사회가 누구를 위한 사회였는가를 날마다 고발해 주고 있다.

언론이 밝힌 추문내용들, 특검에 의해 밝혀진 사실들, 부역자들이 서로 한 중언, 차고 넘치는 각종 범죄증거물들…

그것이 밝혀준 진실은 무엇인가.

3년 수개월이 지나 뒤에는 옆에 떨어보니 뜻밖에도 박근혜 《정권》이란 《최순실 공화국》이었다.

《선거》로 《대통령》이 되었다는 박근혜는 옷 벗겨보니 한갓 선무당의 꼬두각시에 지나지 않았다. 《대통령》의 연설문도, 회의발언문도 최순실이 고쳐서 준 것이였고 청와대비서관들, 장, 차관들의 임명, 해임에도 최순실의 입김이 빛쳐있지 않 은데가 없었다. 외교, 안보를 비롯한 최대의 보안을 요구하는 비밀문건들도 최순실의 손에서 다듬어졌고 해외행각일정, 몸 치장까지 모두 최순실이 관장했었다. 박근혜는 최순실이 써준대로 말하고 그의 지시봉이 가리키는 대로 움직이고 지어 그가 입으라는 옷만 입은 한갓 인형에 불과했다.

꼭두각시, 인형에게는 머리가 없다. 형체만 있을 뿐 뇌수가 없다. 올림 머리를 자주 뜯는 박근혜의 그 머리는 알고보니 너무 도 텁텁한 인형조각이였다. 남이 써준것밖에는 말할 줄 모르는 천치, 자기의 무식, 무능이 드러 날가봐 장관들도 한번 안 만나고 서면보고만 받았다는 《수첩대통령》.

그는 《준비된 네성대통

류인원을 보는듯 하다. 벌거벗은 악녀, 이것은 한갓 그 누구에 의해 만들어진 창작품도 아니요, 세상사람모두가 지금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경악해하는 박근혜의 기괴한 몰골이다. 말그대로 추악하고 저질스러운 모든것을 속속들이 알게 해주는 벌거벗은 악녀 박근혜의 역겨운 자화상이다.

스스로 알몸을 드러낸 망신녀

《령》이 아니라 전혀 준비되지 않았고, 되어서는 안될 알짜 무식쟁이 깡통 《대통령》이였다. 그런것을 《대통령》이라 불리웠으니 남조선인민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는가.

4년 전 수많은 남녀민중은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육성을 들었다. 그러나 년의 집권 4년은 모두의 삶을 짓밟고 꿈파괴망마저 치참하게 앗아간 악몽의 4년이였다. 청년들은 더는 포기할것이 없는 《N포세대》로 전락하고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더는 사회에 희망을 얹을수 없어 초불을 들고 투쟁의 거리에 나서고있는 판이다. 자살률은 세계최고로 치솟고 《헬조선》, 《탈조선》은 오늘의 남조선을 상징하는 류행어로 되었다.

박근혜가 만들어온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결국 백성들의 괴롭고 죽음으로 《박근혜와 최순실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였다. 그러니 《이게 나라냐》하는 백성들의 통탄이 울려나오지 않을수 없다.

100여년전 섬오랑캐들에게 나라를 빼앗겨 백의민족 누구나 망국을 통탄하며 《시일야방성대곡》을 했다면 지금 남조선에서는 《국민주권》을 선무당에게 빼앗기고 《국정》이 봉괴된 참혹한 현실을 통탄하며 분노의 초불이 밤하늘을 계속 밝히고 있다. 모든것이 뒤죽박죽되고 참혹하게 유린된 《개한민국》, 《망한민국》을 만들어온것이 《대통령》이라는 박근혜였다.

초불이 비친 박근혜는 악취풍기는 부패의 왕초였다.

박근혜의 부정부패는 상상을 초월하는것이였다.

50여개의 대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엄청난 돈을 받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과 같은 《가족회사》를 꾸리고 퇴임

이후에 쓸 비밀자금을 불구온 박근혜이다. 대기업 이런 대기업은 다 돈을 냈다. 욕심도 어지간해야겠는데 600억원을 뜯어내는 것도 성차지 않아 대기업 우두머리들을 대면하여 너무 작다, 1 000억원을 내라며 호통친 《현대판 변학도》가 치마두른 박근혜였다. 그 돈이 다 어떤 돈이겠는가. 그대로 동자들의 괴롭고 그만큼 자본의 착취는 더욱 악착진 것이다. 지금 남조선각계가 정경유착의 부폐사슬을 끊겠다며 육육대고 있는 것은 우연치 않은 것이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공주》로 내세우려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여기저기 압력을 행사하며 부정한 돈을 긁어모았으니 경제와 민생을 돌보는 《대통령》이 아니라 경제를 등치고 민생을 파괴하면서 정유라만을 살찌게 해온 《대통령》이였다.

박근혜는 해외나들이를

갈 때마다 갖가지 색갈과 문양의 치마저고리를 같아입으며 얼굴에 화사스러운 웃음을 끌어 떠우기도 하였다. 그 치마를 벗겨보니 그 알몸뚱이는 독사였다.

법원을 내세워 합법적 정당을 강제해산해치운 파

쇄적만행도 알고보니 청

와대 암독사의 지시에 따

른것이었다. 그 독이발에

물려 괴를 훌린것이 어찌

이 정당뿐이겠는가. 《블

랙리스트》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데서도 알수 있는 것

처럼 자기의 눈에 조금이라도 거슬린다고 하여 근

1만명에 달하는 문화예술

계 인사들에 대한 《요시

찰명단》을 작성하고 음

으로 양으로 박해탄압해온

지독한 파쇼팡이 박근혜

였다. 《국민대통합》이란 허울뿐이고 민중을 적,

아로 나누어놓고 자기에게

순종하지 않는 모든 세력,

남조선인민들의 대다수를

《중복》으로 몰아대며 박

해온 박근혜의 파쇼통치

는 그대로 《유신》독재부

활과정이였다.

초불로 더욱 드러난 박

근혜의 정체는 외세굴종의

화신이고 동족대결의

미치광이였다.

력대로 민심을 등진 남

조선의 독재자들은 침략적인

외세에게는 아부굴종하

고 제 민족, 동족에게는

사나운 이리가 되어 물어

뜯지 못해 안달아하였다.

하지만 박근혜의 그 특등

매국기질, 동족대결기질

에는 누구도 따라가지 못 한다. 미국과 일본에 《싸드》배치, 일본군성노예문제 《합의》, 정보보호협정 체결 등 폐출것은 다 폐주고 정작 괴를 나눈 동족과는 대화도 필요없고 오직 재제와 압박의 채찍 만이 필요하다며 집권 수년을 동족대결로 허비해온 박근혜였다. 그 돈이 다 어떤 돈이겠는가. 그대로 동자들의 괴롭고 그만큼 자본의 착취는 더욱 악착진 것이다. 지금 남조선각계가 정경유착의 부폐사슬을 끊겠다며 육육대고 있는 것은 우연치 않은 것이다.

큰 성과》라고 추켜올리고 있으니 박근혜의 《대북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북남 관계를 망쳐버리고 통일을 하지 않기 위한 반민족적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금 알 수 있다.

초불민심에 의해 훌륭 드러난 박근혜의 몰골, 그것은 프로포폴이니 보톡스니 하는 약물에 중독되어 누렇게 뜨고 부석부석한 얼굴, 부페에 병들고 독재에 찌들어 말라비 틀어진 몸뚱이, 동족대결과 친미사대가 빠속의 구석구석에 배인, 말그대로 파먹은 김치독같은 흥물스러운 로구였다.

그리고도 《피눈물》이 무

엇을 사람들은 미처 몰랐었다.

수백명의 아이들이 배와 함께 바다속에 수장되어 살려달라며 울부짖고 선체의 벽을 손톱으로 긁던 그 처절한 순간 자기는 달나라사람인듯 태연자약하게 관저의 침대위에 드러누워 무려 7시간동안이나 제 얼굴의 성형수술을 하며 딴장을 보았을 때 벌써 그는 살인악녀의 본색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리고도 《피눈물》이 무언지 오늘에야 알았다.》고 너두리를 늘어놓은 박근혜, 그가 말한 《피눈물》은 남조선인민들을 위한 피눈물이 아니라 순수 자기만을 위한 《피눈물》이였다.

얼마전 《더러운 잠》이라는 자기의 라체그림을 《국회》청사안에 전시하였다고 박근혜는 부역자들을 내세워 《대통령의 신체보도》, 《녀성인권에 대한 침해》니 뭐니하며 법에 소송하겠다고 길길이 날뛰었다.

자기의 죄파는 다 언론과 검찰이 지어낸 거짓이고 지금의 탄핵사태가 《거짓으로 쌓아진 커다란 산》이라고 하는 파렴치한 추물이 바로 박근혜이다. 두고두고 혁사와 인민이 용서 못 할 특대형 죄악을 저지르고도 헐끌만 한 죄의식이나 반성도 없고 오히려 초불민심이 잘못되고 그것은 《민심이 아니》라고 칠면피하게 강변하는 악녀가 역시 박근혜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박근혜때문에 정치적파국과 혼란이 수개월째 지속되고 추운 겨울날 수십, 수백만명의 남녀로소가 초불을 들고 친바람 부는 거리에 나와 《박근혜퇴진》을 계속 웨치고 있다. 그 집회는 벌써 20번째로 유파하며 서울만이 아니라 온 남녀의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인간이라면, 한조각의 향심이라도 있다면 저때문에 초래된 파국적현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쇠고랑을 차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러기는 고사하고 부정부패로 긁어모은 돈을 보수멸거지들에게 뿐이며 맞불집회소동을 일으켜 초불을 꺼보려고 발광하는것이 미친 청와대 악녀 박근혜이다.

박근혜에게는 인간 사랑의 감정이라는것이 추호도 없다. 원래 박근혜는 인정이 너무도 매마르고 표도스러워 차디찬 《얼음공주》로 불리워왔다. 그러나 그렇게 차고 뜨거운것이 전혀 없는 행렬한, 악귀중의 악귀가 박근

제 되자 보수세력내에서는 《정말 앞이 캄캄하다》,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 《대선은 뒤집기 어려운 판이다》며

제 되자 보수세력내에서는 《정말 앞이 캄캄하다》,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 《대선은 뒤집기 어려운 판이다》며

제 되자 보수세력내에서는 《정말 앞이 캄캄하다》,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 《대선은 뒤집기 어려운 판이다》며

제 되자 보수세력내에서는 《정말 앞이 캄캄하다》,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 《대선은 뒤집기 어려운 판이다》며

제 되자 보수세력내에서는 《정말 앞이 캄캄하다》,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 《대선은 뒤집기 어려운 판이다》며

제 되자 보수세력내에서는 《정말 앞이 캄캄하다》,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 《대선은 뒤집기 어려운 판이다》며

제 되자 보수세력내에서는 《정말 앞이 캄캄하다》,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 《대선은 뒤집기 어려운 판이다》며

제 되자 보수세력내에서는 《정말 앞이 캄캄하다》,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 《대선은 뒤집기 어려운 판이다》며

린 산》이라고 뺏대며 얼마전에 있은 최종변론이

라는는데서도 《아니다》, 《모른다》는 식으로 후백을 전도해나섰다.

그런다고 제 뜻대로 될 일도 아니고 어차피 죽기는 마찬가지이다.

만인이 저주하는 죄악의 목숨은 오래 끌어야 저도 고통이고 그럴수록 제 싼동에 제가 물리앉게 되는 날만 앞당긴다는것을 년은 아직도 잘 모르는것 같다.

박근혜가 어떻게 하나 살아보겠다고 《현법재판소》에 서면으로 낸 최후진술이라는데서도 몸서리칠 자기의 갖은 죄악을 부인해나선데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참으로 뻔뻔하다》, 《궤변의 극치이다》, 《무책임파 비인간적태도에 다시 한번 몸이 떨린다. 이제 이런 꿀을 보는것도 마지막이라는데서 그나마 위안을 찾는다.》고 비꼬았다.

살겠다고 발버둥칠수록 파멸의 수렁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게 된다는것을 박근혜는 이제라도 알아야 한다.

* * *

벌거벗은 박근혜는 이처럼 추악하고 너절하고 사악하기 그지없는 악녀 중의 악녀이다.

세상천지 어디 가서 이런 악녀를 다시 볼수 있으며 세상의 모든 붓대를 다동원한들 이런 인간오작俑을 어찌 형상해낼수 있으랴. 고금동서에도 찾아보기 힘들고 인간의 리성으로는 상상할수도, 리해할수도 없는 이런 악녀가 조선사람의 이름을 달고 있는자체가 우리 민족의 수치이고 남조선인민들의 치욕이라 해야 할것이다. 박근혜는 애당초 이 땅에, 인간세상에 태여나지부터 말았어야 했다. 그의 정치인생은 그대로 남조선인민들의 불행이고 재난의 화근이며 민족의 망신거리이기도 하다.

남조선의 초불민심은 이미 박근혜탄핵의 준엄한 명령을 내렸다. 그 명령은 누구도 거스를수 없는 지상의 명령이고 혁사의 부름이다.

흉물스러운 알몸을 만천하에 드러낸 천하악녀 박근혜년이 마지막을 몰아칠 날은 이제 며칠밖에 안남았다. 흉물스러운 악녀가 내지르는 최후의 비명소리가 초불너머로 들려오는 3월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수, 김진태를 비롯한 악질보수분자들은 민심의 준엄한 철퇴가 제 머리를 겨누고 있는줄도 모르고 박근혜의 너절한 파수꾼이 되여 박근혜탄핵반대란동에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보수세력들의 망동은 더러운 명줄을 부지하기 위한 단말마적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한 새 사회, 새 정치를 갈망하여 일떠선 남조선인민들은 최후발악하는 보수세력들을 기어이 쓸어버릴것이다.

민심의 탄핵지향은 누구도 막을수 없다

지금 남조선에서 박근혜 탄핵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에서의 최종변론도 이미 마무리되고 이제 《탄핵인용》이거나 아니나의 선고만 남아있다. 분석가들은 앞으로 한주일 남짓정도 있으면 탄핵심판결정이 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결정이 하루하루 다가오는것과 관련하여 남조선에서는 선무당 최순실과 작당해서 온 남녀땅을 온갖 부정과 부패의 란무장으로 만든 집권자를 반드시 탄핵시켜야 한다는 인민들의 절규의 목소리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높아가고 있다.

박근혜탄핵은 혁사의 정의이다.

지난 4년을 경파해오면서, 특히 이번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을 통하여 남조선의 현 집권자는 권력형부정부패의 상징, 모든 사회악과 불의의 대명사로 락인되었다.

대표적으로 보더라도 지난 시기 아무런 공지도 없는 정윤회가 집권자와의 친분관계를 리용하여 정치를 제멋대로 통락해온 정윤회 《국정》개입사건, 온 남조선땅을 경악케 했던 권력형부정부폐사건인 성완종사건, 이번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 등 어느것 하나 박근혜가 개입되지 않은 사건이란 없다. 특히 이번 특대형추문사건의 경우 들추면 들출 수록 구린내 나는 청와대

악녀의 만고죄악이 더욱 날날이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의 지나온 집권행적은 파쇼독재와 반인민적 악정의 연속이였다.

남조선집권자는 민중을 《개, 돼지》처럼 여기면서 저 하나만의 권력야욕, 부화방탕과 치부를 위해 동자들의 피땀을 짜내고 농민들의 삶을 처참하게 짓밟았으며 반항하면 물대포를 쏘아 백남기와 같이 무참히 살륙하였다. 박근혜의 악정하에서 바다에 빠진 수백명의 아이들은 구원의 손길 한번 못 받아보고 원한서린 눈을 감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죄악의 선택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래서 로동자들은 자

기들을 더욱 죽이는 로동관련법개정을 반대하고 탐욕의 상징인 재벌의 해체를 부르짖으며 초불을 추켜들었고 끄락또르까지 물고 서울로 올라온 농민들은 쌀값인 상등생존수호를 절규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생들과 고등학교 학생들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와 같은 특권층의 자식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썩은 교육현실을 개혁하자며 초불바다에 뛰어들고 빈민들과 장애인들은 최소한의 생계보장,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여 분노의 함성에 자기들의 목소리를 핥치고 있다. 《세월》호유가족들은 수백명의 자기 아이들을 바다에 빠뜨려 죽인 진상을 밝히려며 초불

의 광장에서 울분을 다시 토해내고 있다.

남조선집권자는 사상 류례없는 동족대결소동으로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에 몰아넣었다. 《대화》는 필요없고 북에는 오직 《제재와 압박》만을 가해야 한다고 고아대며 박근혜는 6.15의 옥동자인 개성공업지구마저 폐쇄해버림으로써 북남관계의 마지막 줄마저 끊어놓았다.

오늘 남조선의 거리거리에 흐르는 거대한 초불의 대하는 특대형정치 주문사건에 대한 분노와 함께 파쇼독재와 반인민정책, 사대미국과 동족대결을 일삼아온 박근혜 《정권》의 4년간에 대한 쌍이고 쌍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다.

모든 사회악과 불의의 상징인 박근혜에게 응당한 징벌이 가져지지 않으면 그것은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것으로 된다.

이것은 집권자의 반인민적 악정으로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난 수많은 《백남기》들을 두번 죽이는 것이고 《세월》호에 간혀 바다에 수장된 수백명의 아이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또다시 《가만히 죽으라》는 것이며 박근혜 없는 세상을 웨치는 수천만인민들의 피라는 절규에 침울한 것이다.

박근혜를 탄핵하라! 이것은 남녀의 민심이다. 지금 남조선의 초불의 광장들에서 박근혜탄핵을 웨치고 있는 것은 특대형정치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말부터 남조선의 전 지역에서 출기차게 이어지고 있는 전인민적인 초불투쟁에는 로동자, 농민, 대학생, 학자, 공무원, 기업인들은 물론 나아린 초등학생들과 유모차를 앞세운 얘기어머니들까지 무려 연 1 400만명 이상이 참가하였다 한다.

진보와 보수, 지역과 계층을 초월하여 박근혜를 저주하고 중오하는 99%의 국민이 초불을 들고 일떠섰으며 동포들이 사는 해외의 곳곳에서도 매일같이 초불집회가 벌어지고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의 친박근혜파와 《박사모》를 비롯한 한줄도 안되는 우익보수멸거지들도 초불투쟁에 나선 각계층 인민들을 《종북세력》, 《빨갱이》로 모독하고 지어 인터네트에 《좌경빨갱이무리를 처단할것》이라는 악의에 찬 글들을 무더기로 게시하면서 초불민심을 《백색로》 할 흥심까지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최악의 궁지에서 벗어나보려는 악의에 친발악이며 대세의 흐름에 대한 초보적인 판별력조차 없는 국도의 무지로부터 출발한 정치 저능아, 정치깡패들의 단말마적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남조선에서는 이러한 혁사와 정의의 진리와 법칙을 무시하고 혁사와 민족 앞에 만고대죄를 저지른 박근혜의 죄를 감싸주려는 몇몇 안되는 우익보수세력들의 해괴한

악녀의 만고죄악이 더욱 날날이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의 지나온 집권행적은 파쇼독재와 반인민적 악정의 연속이였다.

박근혜페거리들이 아무리 악

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지금 남조선인민들의 78.3%가 박근혜탄핵에 찬성하고 있으며 탄핵이후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76.5%로 압도적다수를 이루고 있다 한다. 그리고 설령 《탄핵기각》이 된다고 하여도 70.1%가 《대통령직복귀》를 반대해나서고 있다 한다.

지금 남조선의 초불민심이 절규하는 것은 박근혜탄핵과 함께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재난만을 강요하는 쪽고 부패한 모든 것의 청산이다.

청와대 악귀들을 징벌하고 《정권》교체를 실현하여 민주와 통일의 새세상을 안아오려는 남녀민중의 의지는 확고부동하고 정의와 진리의 힘은 불의와 매국의 힘을 압도하고 있다.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였다. 민심이 가는 길은 그 누구도 막을수 없다. 맞불집회, 쿠데타위협으로도 되돌릴수 없는 것이 참다운 인간사회를 지향하는 남녀민심의 거세한 흐름이다.

파멸의 낭떠러지에 선 박근혜의 비참한 운명은 반인민적, 반민주적, 반통일적죄악만을 저질러온 청와대 악녀가 자초한 것이다.

정의로운 사회, 새 정치, 새 생활을 지향해나아가는 남녀민심의 도도한 흐름은 그 누구도 가로막을수 없다.

본사기자 최광혁

악녀를 기다리는 단두대

대

《준비된 녀성대통령》을 운운하던 박근혜는 준비가 전혀 안되고 《대통령》이 도저히 될수 없는 천하 무지하고 무능한 악녀였다.

박근혜는 동족대결에 피눈이 되어 날뛰면서 대결 당연들을 수두룩하게 쏟아내고 미국상전들과 각종 명목의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다 못해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북남관계를 완전도록내는지도 서슴지 않았다. 남조선 각계가 한결같이 평하듯이 말 그대로 박근혜 《집권》

남조선 야당이 역도년의 4년죄악을 담은 자료집 발간

처

집은 은지적하였다. 자료집은 개성공업지구를 결딴내고 미국의 《싸드》를 들어들이기로 하였으며 일본과 성노에 문제를 《합의》하고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것 등 반통일적이며 사대매국적인 정책들을 《정부》의 잘못된 정치로 타매하였다.

가정들에서 진 빚과 실업률이 력대 최대, 최악의 수준에 이르게 하고 혁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였으며 언론의 자유를 말살한데 대해서도 자료

이날 자료집발간과 판

최근 남조선의 4년은 《사년(四년)이 아닌 사년(死年)》으로 되어버렸다.

죄에는 별이 따르기마련이다.

남조선의 각계층은 오직 민중의 힘으로 박근혜를 청와대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웨치면서 탄핵판결전까지 투쟁을 하루도 멈추지 않겠다고 결의하고 있다. 야당들도 《대선보다 탄핵결정이 선차》라고 하면서 박근혜를 기다리는 것은 그의 목에 맬 포승줄이다.

이에 질겁한 박근혜와 그 부역세력은 탄핵기각을 노린 《박근혜자진사퇴론》을 내돌리는가 하면 《폭동》이니, 《내란》이니, 《피바다》니 하고 공

포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실날같은 잔명을 어떻게 하나 유지해보려고 최후발악하고있다. 그러나 민심의 저주와 종오를 받는 역도

년의 비참한 말로는 다르게 될수가 없다.

남조선의 각계층은 특검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진 박근혜의 범죄혐의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민심을 외면하고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의 발악에 놀리워 탄핵을 기각시켰는 경우 혁사의 심판대우에 올라설것이라고 경고하고있다.

청와대악녀의 목줄은 시시각각으로 조여지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이 추켜든 분노의 초불은 암독사는 물론 그 추종세력들에게도 준엄한 사형선고를 내릴것이다.

본사기자 현은경



만평 탄핵렬차



죄에는 별이 따르는것이 인륜법도이며 정의와 진리이다. 그래서 《죄와 별은 한줄기에서 자란다.》, 《죄악의 씨앗을 심고 덕의 열매를 따먹을 수 없다.》는 말도 생겨난것이다.

지나온 혁사를 보아도 혁사와 민족앞에 씻을수 없는 죄를 지은자들에게는 려외없이 언제나 단호하고도 준엄한 정벌이 차례였다.

《승리자에게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호통치던 전쟁파쑈방에게도 종당에는 파멸의 무덤속운명이 차례진 사실도 혁사의 폐지들에는 기록되어있다.

남조선에서 만고역적 리승만과 파쇼독재자 박정희의 말로가 그처럼 비참하였던것도, 전두환이나 로태우를 비롯한 군사깡패들이 혁사의 시궁창속에 처박힌것도 지은 죄로 하여 혁사와 민심이 그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렸기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남조선에서는 이러한 혁사와 정의의 진리와 법칙을 무시하고 혁사와 민족앞에 만고대죄를 저지른 박근혜의 죄를 감싸주려는 몇몇 안되는 우익보수세력들의 해괴한

놀음이 벌어지고있다.

지금까지 박근혜의 무죄를 주장하던 고용법률대리인단 것들은 청와대악녀의 탄핵이 현실로 다가오자 《탄핵재판의 공정성》 문제를 걸고드는가 하면 탄핵이 결정되는 경 우 《내란이 일어나고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것》이라느니 뛰어나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을 위협해나서고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의 친박근혜파와 《박사모》를 비롯한 한줄도 안되는 우익보수멸거지들도 초불투쟁에 나선 각계층 인민들을 《종북세력》, 《빨갱이》로 모독하고 지어 인터네트에 《좌경빨갱이무리를 처단할것》이라는 악의에 찬 글들을 무더기로 게시하면서 초불민심을 《백색로》 할 흥심까지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최악의 궁지에서 벗어나보려는 악의에 친발악이며 대세의 흐름에 대한 초보적인 판별력조차 없는 국도의 무지로부터 출발한 정치 저능아, 정치깡패들의 단말마적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

박근혜페거리들이 아무리 악

에 떨쳐나서고 있는 것은 너무나 도 용당한 일이다.

박근혜로 말하면 집권기간 온갖 반인민적이며 반민족적인 죄에 대한 심판은 언제나 혁사와 인민이 내리기때문이다.

민심은 이미 박근혜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

희세의 정치협집군이고 독재왕이며 인간추물인 박근혜

를 기어이 퇴진시키고 혁사의 준엄한 정벌을 안기고야말려는 것은 남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지이다.

지금 제가 쌓은 땅우에 주저앉은 풀이 된 박근혜의 가련한 처지는 바로 그가 지은 천만가지 죄악의 응당한 대가이다.

박근혜는 집권기간 력대 통치배들을 훨씬 끓어가는 만고죄악을 서슴없이 저지름으로써 제손으로 죽음의 함정을 깊숙이 팠으며 비참한 종말의 시기 를 1년이나 앞당겨놓았다.

오늘 남조선 각계총이 《끌 장내자 박근혜집권 4년》을 웨 치며 한결같이 박근혜탄핵투쟁

에 떨쳐나서고 있는 것은 너무나 도 용당한 일이다.

박근혜로 말하면 집권기간 온갖 반인민적이며 반민족적인 죄에 대한 심판은 언제나 혁사와 인민이 내리기때문이다.

몰뚱아리는 비록 현재에 있어도 넓은 아득한 《유신》시대에 두고있는 박근혜에 의해 남조선에 세인을 몸서리치게 한 군사독재시기의 법적, 제도

적장치들이 그대로 환원복구되어 제2의 《유신》독재가 구축되고 파쇼의 서슬푸른 칼부림 속에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가 깡그리 말살되는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다.

합법적인 정당, 단체들이 정의와 진리를 주장하였다고 하여 하루아침에 강제해산당하고 민족의 단합과 통일에 기여한 의로운 인사들이 겸기투옥되는 횡포무도한 폭압란동이 혜사사로 되었다.

《세월》호대참사로 하루아침에 생때 같은 자식들을 잊고 피눈물을 뿌리는 유가족들이 《시체장사군》, 《란동군》

으로 모욕당하고 초보적인 생존권을 요구하던 농민이 천인공노할 파쇼적폭거로 사경에서 헤매이다가 끝내 숨을 거둔 것도 박근혜의 반역정치가 가져온 비극적 산물이다.

박근혜가 저지른 죄악들이 그리하지만 그중에서도 동족대결에 피눈이 되어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가로막고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에 몰아넣은 천추에 씻지 못할 만고대 죄악은 절대로 용납할수 없는 것이다.

《신뢰프로세스》, 《드레즈멘선언》, 《통일대박》 따위의 해피한 분별각본, 대결창 안풀을 꾸며내여 통일의 대로에 빗장을 찔러대고 이 나라 강토를 영구적으로 갈라놓기 위해 군사분계선전구간에 콩크리트장벽을 쌓아놓은 애비박정희역도의 천추에 용납 못 할 죄악을 통가하여 북남관계를 인적, 물적교류의 완전차단과 총포탄이 오가는 핵전쟁발발지전의 항시적인 위기국면에 몰아넣은 희세의 대결악마가 박근혜였다.

불과 4년밖에 안되는 집권기간 남조선의 혁대 통치배들이 지은 죄를 훨씬 끓어가는 박근혜가 갈 곳에 없다. 처량한 장송곡이 울리는 속에 청와대악녀의 판두껑을 덮을 날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본사기자 주광일

서북청년관의 유행어 떠도라

남조선에서 민심의 강렬한 요구와 열망으로 하여 박근혜년에 대한 탄핵 판결은 눈앞의 일로 박두해왔다.

그에 따라 이를 막아보려는 보수세력들의 광기도 국도에 달하고 있다.

박근혜 탄핵을 요구하는 초불집회에 맞서 맞불집회라는 것을 벌려놓은 보수파 거리들은 박근혜에게 죄가 없다는 저들의 억지 주장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북의 지시를 받는 빨갱이》라며 계엄령을 선포하고 종으로 쏘아죽여야 한다는 폭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짜고짜로 달려들어 낸의 탄핵과 관련한 립장을 밟히라고 강박하는 가하면 조금이라도 주춤거리면 달려들어 폭행을 가하고 있는 정도이다.

초불투쟁 세력을 《종북세력》, 《빨갱이》로 몰아대다 못해 《특검도 빨갱이》라고 하면서 모형물로 형상화한 특검관계자들의 목을 매달고 가족들에게 신변위협을 가하는 짓도 가리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기자들에게까지 달려들어 마구 폭행을 가하고 집회장 주변의 상점, 식당들에 집단적으로 밀려들어가 란장판을 벌리는 등 광기를 부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은 인터넷에 《탄핵은 역적 행위기 때문에 군법으로 응징해야 한다.》, 《좌경 빨갱이 무리한 헌법을 경고한다. 처단할 것이다.》는 악의에 찬 글들을 무더기로 게시하는가 하면 《헌법재판소》 판사들을 테로하기 위한 《암살단 모집》이니, 《할복단 모집》이니 하는 놀음까지 벌려놓고 있다.

물론 몇푼의 돈에 훌리워 거리로 끌려나온 인간쓰레기들이니 타당한 론리나 주장도 없이 막말과 폭언, 폭행이 표현방식의 전부인 것은 당연하다.

날로 더해지는 극우세력의 극단적인 광증은 흡사 리승만 통치 시기 악명 떨친 《서북청년단》의 망동을 그대로 보는 듯하다.

반세기도 아니고 70년 이 지난 오늘까지도 사람들은 《서북청년단》이란 이름을 듣기만 해도 치를 떨고 있다.

그것은 《서북청년단》이 친미국 우세력의 돌격대가 되어 민주진보세력을 탄압, 태로하는데 앞장섰던 정치깡패이고 수많은 남조선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야수의 무리였기 때문이다.

당시 친미주구 리승만은 각계층 인민들의 강력한 규탄대상이었다.

남조선인민들로부터 외면당한 리승만 《정권》은 《서북청년단》과 같은 정치깡패들을 내몰아 폭력배들에게 의거하여 통치력의 허점을 가리우려고 했다.

하여 깡패무리들은 권력의 철저한 보호밑에 온 남조선 땅을 퍼로 물들이며 자주와 민주, 통일을 바라는 진보적인 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했던 것이다.

그런데 저주받을 《서북청년단》의 악몽이 《박사모》를 비롯한 극우보수깡패들에 의해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친미파 쇼의 아성이었던 리승만 《정권》을 반대한 인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태로하고 탄압한 《서북청년단》이나 오늘 날 민족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악만을 만들어놓은 박근혜를 옹호하며 폭력적인 언사와 폭행으로 공포와 혼란을 조성하려는 보수파 거리들이나 다른게 있는가.

무모한 정치깡패에 의지했던 리승만의 종말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박근혜는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하며 《백색 테로》의 회오리를 몰아온 《서북청년단》의 만행을 보는 것 같아 섬찟하다는 목소리가 한결같이 울려나오고 있다.

역사는 공정하다. 세월이 훌러 《서북청년단》의 반민족적, 반인륜적 죄악을 심판한 역사는 먼 후날 진보와 정의를 외면하고 특등범죄자인 박근혜를 무력대고 싸고돌며 파쑈독재의 연장을 웨쳐대며 사회에 공포와 불안만을 조성하는 《박사모》와 같은 극우보수깡패들의 죄악도 계산할 것이다. 악몽은 절대로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제2의 《서북청년단》과 같은 깡패무리에 기대여 가느다란 명줄을 이어가려는 박근혜와 보수파당들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의와 진보의 길은 그 무엇으로 써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무모한 정치깡패에 의지했던 리승만의 종말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박근혜는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본사기자 황진옥

피를 부르는 악녀의 《회답편지》

얼마전 박근혜는 자기의 생일을 계기로 보내온 편지들에 《회답편지》라는 것을 보냈다고 한다.

물론 편지는 《박사모》니, 《어버이련합》이니 하는 한줌도 안되는 보수 멸거지들이 몇자 끄적거린 것이다.

가판은 초불민심의 탄핵기운에 《숨쉬는 미이라》로 청와대 구석에 박혀있던 박근혜가 뻔뻔스럽게 보낸 《회답편지》의 내용이다.

《고맙다.》, 《격려가 된다.》, 《감사하다.》는 것이다.

《고맙다.》? 가장 추악하고 너절하고 비루한 자기를 편들어주는 늙다리 할망구, 할애비들이 참고맙다는 소리다.

자기를 대신해서 《빨갱이를 죽이라.》, 《계엄령을 선포하라.》, 《피바다》 등 듣기에도 소름 끼치는 망발들을 부르짖으며 《암살단》까지 조직하려는 수구꼴통들이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는 것이다.

《격려가 된다.》? 특검도 종지되었고 이제 탄핵도 기각된다면, 하여 자기의 권력이 재생하게 되면 수구보수의 기대에 보답하겠다는 악담이다.

종말에 이른 순간까지 보복의 독이발을 갈며 피비린내를 풍기는 박근혜의 《회답편지》는 초불민심으로 하여금 독사는 단매에 숨통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하고 있다.

김장호



혹 떠려다 혹을 더 불인 《의견서》

민심의 거세찬 분노와 항의의 초불에 정신이 상이 된 박근혜가 자기의 범죄를 부정하며 살아보겠다고 지랄발광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단편적 실례이다.

알려진 것처럼 지난 2월 27일 남조선의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탄핵심판을 위한 최종변론재판을 진행하였다. 최순실이 없으면 머리가 정전이 되고 허가 굽어 말도 어버버밖에 못하는 박근혜가 재판관들의 질문에 두려워

《헌법재판소》에 나가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이런 것으로 하여 역도년은 제출개를 내세워 최후진술과도 같은 《의견서》라는 것을 읽게 하였다.

그 《의견서》라는 데서 박근혜는 제년이 정계에 나선 때로부터 지금까지 부정부폐를 저지른 것이 없으며 탄핵소추안에 밝혀진 범죄혐의들도 인정 할 수 없다고 전면부인하면서 양탈을 부렸다.

제가 저지른 전대미문의 죄악으로 탄핵에 이어 감옥행을 눈앞에 둔 역도년의 국도에 이른 공포와 불안의 심리로 가득 찬 케이스가 아닐 수 없다.

사실상 이번에 박근혜는 《의견서》라는 데서 제기된 사건들에 하나하나 대꾸질하며 자기의 죄과를 부인하며 몸부림쳤지만 그것이 오히려 제년의 범죄를 인정하는 결과만을 초래하였다.

몇 가지만 보기로 하자.

박근혜는 《의견서》라는 데서 선무당에 불과한 최순실의 주문으로 저지른 《국정》 통단사건에 대해 최순실은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아픔을 겪으며 어렵던 시절을 보낸 제년에게 40년간 가족들이 있으면 쟁겨줄 옷가지와 생활필수품 등 소소한 것을 도와준 사람이라고 감싸고 돌았다. 말하자면 박근혜는 사이비 종교의 교주인 최태민과 그의 딸 최순실과의 40년간 관계를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부부일심동체이라 최순실의 남편이었던 정윤회와도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 되었다. 하다면

박근혜가 최순실과 정윤회로부터 옷가지나 생활필수품이나 도움받았겠는가. 박근혜가 《의견서》에서 제년이 정계에 나서

서 《국회》의 원선거와 《대선》 후보경선, 18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연설문들을 주로 보좌진들이 작성했지만 때로는 전문적인 정치용어로 하여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을 체험하였으며 이로부터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해 최순실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고 쉬운 표현을 듣기도 하였다는 그 자체가 최순실의 사주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순실의 그 주문을 받아 박근혜는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도와준다.》, 《통일대박》이라는 도깨비 같은 망발을 쳐쳐대고 일본의 침략의 피수 이도 히로부미를 처단한 안중근이 학살된 장소를 려순이 아닌 할빈이라고 떠드는 몰상식한 추태도 부리였다.

현재까지 드러난 물적증거와 사실자료들은 박근혜가 최순실을 정신적지주로 삼고 그의 말대로 행동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는 청와대에 들어와 정윤회와는 관계를 끊었고 최순실과는 1년간 련계를 맺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의 《의견서》를 통해 박근혜는 그것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공무상비밀 투설》 혐의 문제도 그렇다. 박근혜는 《의견서》라는 것을 통해 혹을 떠려다 불이는 꿀이 되었고 누워서 침뱉은 격이 되고 말았다. 죄와 벌은 정비례 한다. 죄과가 크면 클수록 벌도 더욱더 커진다.

박근혜가 전대미문의 죄악을 산처럼 쌓아놓고 그것을 변명하며 벌을 피해보려 하지만 분노한 민심의 초불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본사기자 김혜성

《그년에 그놈이다》

지금 남조선 전역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황교안의 특검수사 기간연장 거부로 하여 죽기마처럼 끊고 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지난해 12월 말부터 시작된 특검수사로 박근혜, 최순실 추문사건의 많은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최순실과 김기춘, 여러 청와대 비서관들과 전, 현직 장관 등 특대형 부정부패사건의 주범들과 공범들이 적지 않게 구속되었다. 얼마 전에는 정경유착의 핵심 고리의 하나인 삼성그룹 부회장 리재용도 끝내 구속되어 특검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기대가 한층 더해졌다. 하지만 특검수사가 충분히 진행된 것은 아니다. 박근혜와 대기업들간의 검은 유착을 비롯하여 많은 범죄혐의가 다 밝혀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특검은 박근혜년의 더러운 범죄를 끝까지 밝혀낼 것을 바라는 남조선 민심의 강력한 요구를 반영하여 수사기간 연장장을 신청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의 손때 묻은 주구인 황교안은 이를 무작정 거부하였다.

이것은 특대형 추문사건의 공범자로서의 황교안의 정체를 더욱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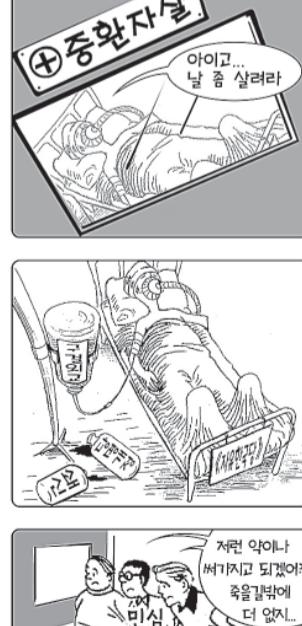
황교로 말하면 박근혜의 치마폭에 쌓여 남조선의 법무부 장관, 《총리》를 해먹으면서 역도년의 지령에 정경유착의 핵심 고리의 하나인 삼성그룹 부회장 리재용도 끝내 구속되어 특검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기대가 한층 더해졌다. 하지만 특검수사가 충분히 진행된 것은 아니다. 박근혜와 대기업들간의 검은 유착을 비롯하여 많은 범죄혐의가 다 밝혀지지 않았다.

이런 자가 여직껏 《총리》 감투를 쓰고 《대통령》 권한대행장을 해온 것 자체가 남녀의 초불민심을 심히 우통하는 것이었다. 《바지입은 박근혜》나 같은 황교안이 역도의 죄상을 더욱 발각하는 특검의 기간연장을 승인해 줄리 만무하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행여나 했더니 역시 그년에 그놈이다.》, 《박근혜와 함께 감옥으로 끌려가야 할 특등범죄자》, 《역사의 대죄인 황교안이 역도의 죄상을 더욱 발각하는 특검의 기간연장을 승인해 줄리 만무하다.

초불민심에 전면도전해 나서고 있는 특대형 추문사건의 공범자 황교안은 박근혜와 함께 남조선인민들이 내리는 징벌의 철자를 절대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본사기자 김명성



《성조기집회, 국제적으로도 망신거리》

남조선에서 맞불집회라는 데서 미국의 성조기가 펼리고 있는 피이한 광경을 보면 남조선 각계가 비난과 조소를 퍼붓고 있다.

남조선의 《뉴시스》는 《이런 〈성조기 물결〉을 바라보는 일반 시민들은 대체로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하였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리성찬은 《광우병 위도 아

이고, 도대체 국정통단사에 미국이 무슨 관련이 있다고 생뚱맞게 성조기를 들고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우리가 미국의 속국이라고 여기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비난하였다. 가정주부인 정다은은 《태극기를 내세워 탄핵 반대를 웨치는 것도 언짢

은데 왜 남의 나라 국기까지 들고나는지 황당하다. 태국 기집회가 아니라 성조기집회라고 불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8살짜리 아들도 보도를 보고 〈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성조기를 들고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뭐라 답해야 할지 몰라 난감했다. 국제적으로도 큰 망신거리》라고 개탄하였다.

본사기자

주소 : 평양 통일신보사

(해외동포 여러분의 서면연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522

편집위원회